

2002년도 TTA 표준화 방향 - 표준화활동 부문



장명국 · TTA 표준화본부장



I. 서론

2002년 임오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말띠해로서 예로부터 우리선조들은 말을 신령스런 동물로써 오래전부터 가정에서 사육되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로써 여겼으며, 힘찬 기상과 질주의 상징으로서 사업의 힘찬 진취성 및 추진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어 첫 번째 세계축구 월드컵대회가 한·일 공동유치로 한반도에서 첫 개막식을 치루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IT기술발전을 기초로한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가능성은 그동안 금융·외환위기가 가져온 IMF경제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는 온 국민에게 새 시대의 희망과 경제회복의 한 해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발전전략으로는 디지털경제 도입 확산과 IT, NT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 그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되며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도 멀티미디어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정보화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은 정보통신표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며,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무역시장에서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기존의 표준 제·개정 업무뿐만 아니라 표준대상 발굴 및 중장기 표준화계획 수립, 표준제품 등에 대한 시험·인증까지 표준에 대한 일괄 One-Stop 서비스 체제를 지난해 말 출범시켰다. 따라서 올해에도 TTA 표준화본부는 정보통신표준의 적기 제정·보급으로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IMT-2000등 국제표준화활동을 적극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표준의 품질향상노력은 물론 표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살아있는 표준, 잘 쓰이는 표준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해에 시행된 여러 가지 표준화사업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문제점들을 먼저 짚어보고 올해의 TTA 표준화 추진방향, 중요계획 및 중점 추진업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금년에 개최될 국제표준행사 및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II. 환경변화 및 지난해 표준화사업의 평가

2001년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IT산업 및 관련 벤처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도약발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다지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정보통신 표준화분야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각광받고 있는 IMT-2000 국제표준화에 있어 ITU-T/R, 3GPPs 등 관련 표준화기구들이 “조화와 협력” 정신에 의거 표준을 개발한 결과 한국, 일본등에는 이미 제한적인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벌써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비전과 정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국제표준화추세는 IMT-2000 국제표준화 과정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세부 표준규격 개발들은 시장의 요구사항 및 기술발전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화 활동기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식 표준화기구(ITU, ISO 등)는 이들의 결과를 취합조정하여 국제표준 문서화하는 절차를 밟는 등 실제 업무분담을 하는 형태로서 국제표준화활동의 중심축이 사실상의(De Facto) 표준화활동으로 많이 옮겨져 있다. 따라서 IMT-2000분야와 같이 유무선 복합기술 및 시스템 표준화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된 표준 협력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제국에서는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 사실상표준화에 거의 동시 반영시키며 검증하는 “Concurrent Standardization, Validation & Verification”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첨단개발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가나 기업군 등에서 표준화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분야로는 IMT-2000 외에 무선인터넷, NGN, 광대역무선접속, ITS, 정보보호 등이며 이들은 향후 잠재적인 시장가치가 큰 복합기술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TTA에서는 지난 한 해 세계적인 표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표준위원회 조직개편을 위해 전담 Ad-hoc 활동 및 업계 의견수렴 등에 노력한 결과 제25차 표준총회에서 새로운 조직(안)을 승인받았다. 정보통신표준총회 산하에 11개의 기술위원회, 2개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이번 개편의 특징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증진을 위해 운영의 산하에 3개 특별위원회와 2개의 Ad-hoc을 설치하여 표준화활동의 전략적추진, 표준적합성에 대한 시험인증, 주요 국제표준회의의 대응전략 수립등과 같이 국내외 표준화활동의 전략적 운영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표준제정 목표 300건에 대비해 총 497건의 표준(개정 3건 포함)을 제정보급하여 상당수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고, 사무국에서는 이들을 정보통신단체표준책자와 CD-ROM으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좀 더 신속한 표준제정·보급, 표준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영문단체표준 제정 활성화, 기존 표준들의 정기적 유지보수 시행 및 그 동안 제정 보급된 약 1,890여 건의 국가표준 및 TTA표준들에 대한 활용실태조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표준화활동의 효율화, 성력화 등을 위해 그간 축적되어온 표준화활동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집약하여 전면적인 전자적 표준화활동 체계도입을 위해 새로운 장비도입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여기에 축적, 활용될 각종 표준화정보들을 향후 체계적이며 입체적으로 입력, 검색,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화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국제표준화 활동부문에서도 IMT-2000의 ITU-T/R 관련 SG 활동은 물론 3GPP, 3GPP2 모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육성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 등의 이중 포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개발기술들을 국제표준안에 반영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착실히 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과 발언권 강화를 위해 의장단 진출확대 및 관련회의 국내유치 등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TTA가 ITU-T의 표준참조기구(Referenced Organization)로 지정되어 향후 ITU-R분야의 권고는 물론 IMT-2000 네트워크분야 권고에도 TTA표준이 그대로 참조인용 될 것이다.

이렇게 IMT-2000, MPEG 등 일부 분야에서는 산업체,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상향식 표준화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외 많은 분야에서는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편중된 현상은 국내표준화 활동에서도 나타나는 데 의장단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어 일반 산업체들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 정보통신표준화 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각 기구간의 협력 및 공조, 업무분담 형태 등을 본받아 국내에서도 정보기술 부문의 표준화추진에 있어서 관련부처 및 기관들끼리의 좀 더 유연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소모지양적인 표준화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I. 금년도 표준화활동 추진방향 및 주요 중점 추진사항

가. 표준화활동 추진방향 및 목표

- 세계표준화 무대에서 주도권확보를 위한 한·중·일 표준 협력체계 구축
- 국내개발 선도기술들의 조기 국제표준화를 위한 포럼 및 표준협력 활동강화
- 산업계 및 이용자요구들을 반영한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사업추진
- 살아있고 쓰이는 표준을 위한 수요조사, 유지보수, 교육 등 활동 강화
- 표준 기획, 시험인증업무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 및 표준 시너지 창출

나. 금년도 표준화 중점 추진사항

1) 표준화조직 재정비 및 주요 핵심위원회 활동지원 강화

시장변화 및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기 위한 조직개편 결정에 따라 총회산하 72개 위원회를 구성·정비하고 신입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며 의장단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교육의 실시는 물론 의장단워크숍을 개최하여 리더쉽 강화, 책임의식 고취, 회의진행능력 향상 등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IMT-2000 프로젝트그룹 등 주요 기술 위원회는 물론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및 Ad-hoc 그룹들이 체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정예화 및 TTA 전문인력 투입 등 다각적인 지원관리를 할 것이다.

2) 중점 표준화분야 활동지원, 관리강화

IMT-2000 무선인터넷, CDMA 국제로밍, VDSL, 무선랜, 전자상거래, ITS, NGIS 등 특정 분야에서 국내개발 기술의 글로벌표준화 반영을 거의 동시에 추진토록 지원할 것이며, 관련 기술 위원회, 프로젝트그룹들이 독자적으로 사업, 시

장, 국내외 표준화동향 등을 종합한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또는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 대외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위원회들이 해당 분야 국내·외 표준화의 연결고리는 물론 사업, 기술, 시장을 결합/연결시키는 배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3) 국내 포럼들과의 연계강화 및 포럼 제안표준안의 조속 단체표준 제정

정보통신 표준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근 많이 설립·운영중인 국내포럼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들과의 구체적 협력방안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산하 “Ad-hoc TTA/국내포럼 Joint Committee”를 통해 정립할 것이다. 또한 각 포럼들에서 만들어진 각종 포럼 규격들을 제안받아 필요시 신속표준화 절차를 적용하여 조속히 TTA단체표준으로 제정토록 할 것이다.

4) 국내표준 추진체계 재정립 및 관련 법규 정비 지원

정통부 방침에 의거 전파연구소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운영을 맡게됨에 따라 현재 제정된 459건의 국가표준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국가표준과 단체표준과의 위상 및 수준을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표준화통합 규칙 등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TTA가 표준화의 중심기구로서 당연히 관련 법규 정비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간에 갈등을 빚고있는 정보기술분야(JTC1등) 표준화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TTA가 적극참여할 것이다.

5) 한국 ITU-R 연구위원회 운영 및 전파통신기술 표준화강화

전파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연구과제가 TTA로 위탁관리됨에 따라 전파연구소에 설치된 한국 ITU-R 연구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운영·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003), 전파통신총회(RA-2003) 및 ITU-R SGs의 국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관련 활동과 TTA 관련 표준위원회 등과 표준화 연계작업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전파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6)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 정책개발 및 관련 DB구축

최근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S/W 저작권등 새로운 지적재산권 개념을 기존 정책에 반영키 위해 선진표준화기구들의 관련 정책조사 및 동향파악을 할 것이며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 DB에 대해 선진 표준화기구들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설계 구성하여 국내외 관련기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7) 한·중·일 표준협력 포럼 구축추진 및 협력분야 발굴

현재 미국, 유럽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표준화무대에서 큰 시장을 갖고있는 중국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과 함께 표준협력 포럼을 구축하여 표준화를 추진한다면 향후 표준화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기구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면 표준협력 포럼을 TTA주도로 구축추진을 할 것이며 아울러 협력분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토의·결정할 것이다.

8) 국제 표준협력 활동강화 및 주요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

차세대이동통신 분야에서도 계속하여 3GPP, 3GPP2 등 양 부문 표준화작업 활동은 물론 ITU 표준화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부문의 활동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활동이 더욱 왕성해 질 것이며 TTA에서도 협력 및 업무분담 차원에서 총 10여 개의 TSG 및 OP/SC회의를 5~6차례의 합동회의로 한국에 유치·개최하여 우리의 기술 등 의견반영에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국제 표준화활동이 연이어 진행되는 데 이의 활동주체는 역시 국제표준화 전문가들로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TTA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지원 등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보보호분야의 국제워크숍도 ITU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이며, JTC1 SC7 서울회의를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주관할 것이다.

9) 정확한 표준 수요 및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분석 및 반영

살아있는 표준, 쓰이는 표준이 되기 위해 작년에 시행한 표준의 활용실태 조사를 금년에는 좀 더 확대보강된 설문조사로서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표준들의 개정·폐지대상 등을 선택하여 위원회를 통한 유지보수를 시행할 것이다. 지속적인 표준 품질향상을 위해 표준초안 개발프로그램의 활용과 사용 용어의 통일화, 표준 편집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제정된 표준들이 최종 적용평가를 받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즉, 표준화의 완성절차인 표준적합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10) 새로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용어 Web 개발

TTA가 대국민 정보통신용어표준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정보화사회 이행에 따른 신규 주요 용어들을 조속히 국내용어로 발굴해 관련 언론매체들과 TTA간행물 등을 통해 선행배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이들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용어 Web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

IV. 결론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기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TTA 설립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TTA도 이미 창립12주년을 넘기었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에도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으며,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표준화업무에 정진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화는 TTA 일개 단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부, 산업체, 사업체, 연구소 등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항시 이슈에 대한 고민과 토의를 진행하여야 표준화의 콘텐츠와 기반이 동시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표준화 전문가들은 TTA를 중심으로 새해부터는 더욱 더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기를 기대하고 한국의 정보통신 표준화발전을 기원해 본다. 